

광양교육지원청, 광양시의회와 교육 성과 및 현안 논의

학력향상·대학진학·글로벌 인재육성 등의 분야에서 거둔 성과 공유 지자체와의 교육협력 중요성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갖고자 마련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정자)은 1일 광양시의회에서 진수와 광양시의장과 의원 등 1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교육 발전 성과와 교육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광양시에서 매년 교육경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학력향상 프로그램'운영 등 12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로 인한 학력향상, 대학진학, 글로벌 인재육성 등의 분야에서 거둔 성과 공유를 통하여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

하였다. 더불어, 광양교육의 현안 중 하나인 지역사회와 연계한(가칭)광양 미래융합교육센터'구축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광양시는 전남 최초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2002. 11. 27.)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03년부터 매년 전전년도 세수의 5%에 해당하는 예산을 광양교육에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6,700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정자 교육장은 "광양시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광양교육의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학생의 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광양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진도교육지원청, 설 명절 앞두고 청렴 캠페인 펼쳐

청렴하고 건전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 위해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포)은 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사 입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없이 모두가 편안한 연휴가 되도록 고향방문 자제,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 등 방역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청렴하고 건전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청렴 캠페인을 시

행했다.

출근하는 전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장이 직접 나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및 소독용품과 청렴의지가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여 더 나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이문포 교육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높임으로써 청렴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활동을 통해 청렴 선도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광주시교육청, 설 명절 공직기강 점검 실시

설 명절 및 코로나19 위기상황 맞아 공직기강 해이 사전 차단

광주시교육청이 설 명절 및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맞아 공직기강 해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북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기강 점검은 1~16일 우리 교육청 산하 기관(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직기강 점검 동안 ▲명절을 틈탄 금품·향음 수수 등 공직비위 ▲코로나19 상황 속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및 방역지침 미준수 ▲소극적 업무처리 및 공직자 품위 훼손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비 태세 유지 실패 ▲기타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배민 감사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순천대, 에코 진로체험 온라인 프로그램 성료

중등 교과 과정 연계 비대면 온라인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해 180여명 대상 시범운영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에코 기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에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온라인 시범사업'자연과 씬, 가든 디자이너'가 최근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온라인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전남 순천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순천만국가정원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정원산업과 우리나라의 정원산업 ▲정원과 직업세계 ▲나의 정원기획서 만들기 ▲나만의 정원만들기 ▲나의 정원 홍보를 위한 포스터·전단지 제작하기 등 총 11개의 강의로 구성되었다.

'자연과 씬, 가든 디자이너' 온라인 과정은 순천대학교 '에코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중등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개발 이후 3개 학교, 초·중고생 175명의 학

생 대상 시범 운영하였다.

온라인 교육은 정원산업에 대한 다양한 사전 지식과 실제 정원을 제작해 보는 체험과 함께 에코 진로체험의 캐릭터인 '푸르미(가칭)'가 출현해 에코 관련 주제를 쉽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와 흥미를 더해 호평을 받았다.

시범운영에 직접 참여한 선생님은 "외부 체험활동을 대신하여 온라인으로 진로체험을 진행한다는 게 생소하기도 했지만, 학교별로 주제별 영상을 선택해서 수업 구성을 할 수 있어 매우 좋았다"며 "체험키트 또한 다양한 재료들이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다음에도 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대학교는 이번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더 많은 소외지역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늘리고,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아 무료로 강의 영상 및 체험 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순천대학교 강령일 기획처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새롭게 기획된 콘텐츠인 '에코 진로체험 온라인 프로그램'은 에코와 생태에 대한 교육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대한 지역 청소년들의 자긍심 고취 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립순천대학교의 우수한 콘텐츠를 많은 지역민에게 알리고, 나아가 순천시 청소년들이 행복 한 진로탐색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꿈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에코 진로체험 온라인 프로그램' 전체 영상은 순천대학교 공식유튜브(https://youtu.be/-wt1q4026f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영암교육청, '농산어촌유학생 맞이 준비' 완료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1월 29일부터 2월 1일 구립초와 구립중학교에서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읊드는 농산어촌유학생 맞이할 한다고 밝혔다.

'농산어촌유학'이란 전남 이외의 도시 학생들이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온마을 돌봄을 연계한 생태·환경 체험을 위해 6개월 이상 전남으로 전학와서 생활하는 것으로 학생이 학교 인근 농가에서 농가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는 홈스테이 형태의 농가형과 가족 전체 또는 일부가 이주하여 마을에서 제공하는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는 형태의 가족형이 있다. 영암은 6개의 가족형(총 17명)과 5명이 머무르는 농가형을 유지해 18명의 학생이 구립초와 구립중학교를 다니게 됐다.

도시(서울) 학생들은 6개월 이상의 농촌지역 시골살이를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환경 교육, 개개인의 빛깔이 소중한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가족형으로 머무르는 학부



모에게는 영암에서 생산된 농산물등을 홍보하고 직거래 장터를 연결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간 진행된 학부모, 학생 맞이 기간에는 학교와 숙소에서 지켜야할 생활안전 수칙, 농산어촌유학생 생활 약속을 안내했으며, 구립초, 구립중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특색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등 학교 프로그램들도 자세하게 안내해 방문한 학부모 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농산어촌유학생 맞이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농산어촌유학프로그램을

신청하고 걱정도 많이 되었으나, 영암교육청과 학교에서 안내해주는 말씀들로 많은 안심이 된다"며 "머물게 될 숙소도 정말 마음에 들어 6개월의 생활이 내심 기대가 된다"고 했다.

김성애 교육장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품고 있는 영암 월출산 아래에서 도시 학생들이 배움·삶·도전의 역량을 키워나가기를 바란다"며 "농산어촌유학을 통해 도시 학생과 농촌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영암교육지원청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